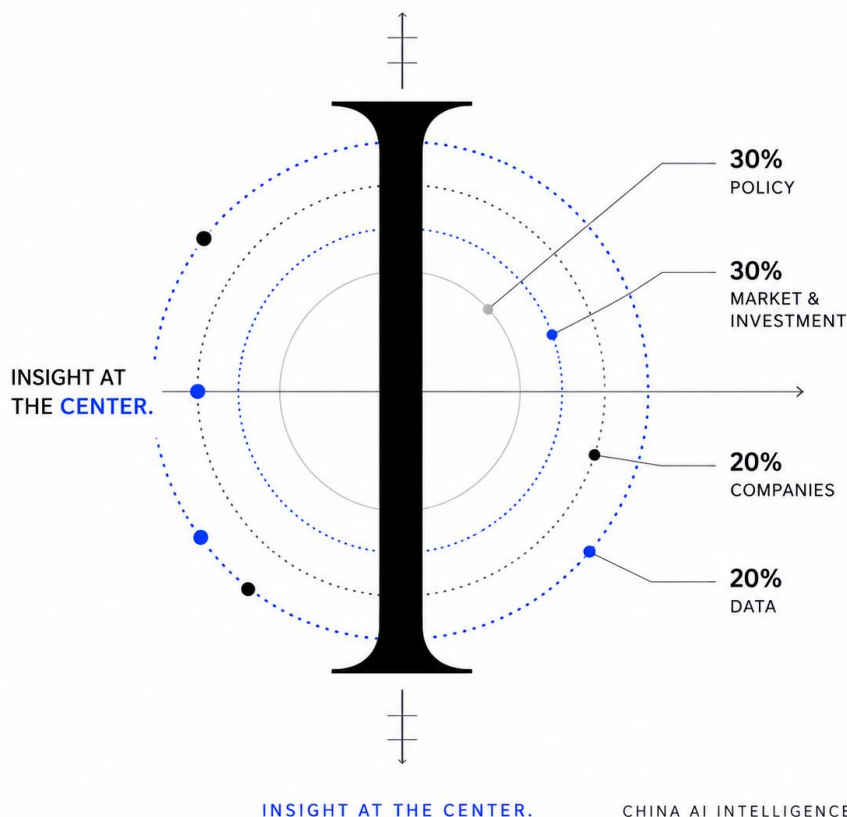


중국 국방·항공우주 심층 리포트

장비 인도가 비는 해에 중국은 전개와 법제로 힘을 보여준다



에디션 월간(Monthly)

발행일 2026년 09월 08일

발행인 차이나랩 CHINALAB

수신자 안보·방산 전략팀, 국책연구·학계, 정책 입안자

환율 USD/KRW 1342.6 · CNY/KRW 200.6 · HKD/KRW 171.26 (2026-09-08 한국은행
매매기준율(ECOS))

목차

실행 요약	4
핵심 인사이트 5	4
한국 안보·방산에 가장 중요한 변화 3 가지	5
위험·기회 매트릭스	5
실행 액션 아이템 5	6
다음 호 전망	6
인도의 골짜기 — 2026 년 상반기 방산 실적이 보여준 것	7
9 개사 3 개 기간 실적	7
이익률이 말하는 위치	8
무엇이 실제로 줄었는가	8
원인은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9
늘어난 쪽에도 유보가 필요하다	9
이 절의 결론	10
예산과 법제 — 돈은 어디로 가고, 공급망은 어떻게 묶였나	11
2026 년 국방 예산	11
국방동원법 개정 — 조문 단위로	11
두 사실을 겹쳐 읽으면	13
대칭에 놓인 미국의 조달 재편	13
【공중】전개로 파는 무기 — 4 개 전선의 연합훈련	14
네 훈련을 같은 표에서	14
이집트 — 6,000km 를 날아가서 라팔과 붙었다	14
개최지의 비대칭	15
태국 훈련에서 드러난 것	15
확인되지 않은 것들 — 관측 수준으로만	16
이 절의 결론	16
【해상】3 항모 체제와 076 의 시간표	18
3 항모 체제의 현재 위치	18
쓰촨함 — 076 형의 시간표	18
싱가포르 훈련 — 무엇을 함께 하는가	19
마찰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19
한반도 — 북한 강건함 취역	20
이 절의 결론	20
【지상】무인·화력의 재배분, 그리고 대만 압박 방식의 변화	21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재배분	21
무인 전력의 제도적 위치	21
대만 방면 — 압박의 수단이 바뀌었다	22
주변의 군비 흐름	22
이 절의 결론	23
【우주】재사용 발사체·저궤도 별자리·유인 월면	24
재사용 —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24
발사 밀도 — 누적 번호가 말해 준다	25

저궤도 별자리	25
유인우주와 월면	26
군사적 함의 — 절제해서 읽는다	26
【사이버·전자전】스펙트럼·인지 전자전, 그리고 데이터 동원	27
확인되는 것 ① — 대(對)무인 체계의 개념 전환	27
확인되는 것 ② —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의 개념 틀	27
본론은 법제 쪽이다 — 데이터가 동원 자원이 됐다	27
규범의 장(場)을 세우는 움직임	28
이 절의 결론	29
방산 수출 지도 — SIPRI 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30
수출국 상위 10 개국	30
중국 — 규모는 5 위, 구조는 편중	30
이집트 대조 — 이 절의 핵심	31
한국 — 9 위로 올라섰고, 시장은 좁다	31
SIPRI 가 말하지 않는 것	32
이 절의 결론	32
군민 융합 2.0 — 상업 우주가 군수 사슬로 들어오는 경로	33
법률이 만든 통로	33
상업 우주가 들어오는 실제 경로	33
밖으로 — 표준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	34
명단이 겹친다	34
국내 저변의 정비	35
이 절의 결론	35
한국 안보·방산 시사점과 액션 플랜	37
협상의 축을 옮겨야 한다	37
감시 지표 — 창이 닫히는 신호	37
주체별·시기별 실행 과제	38
리스크	39
한반도 — 세 흐름이 겹치는 지점	39
부록 — 지표·제원·출처	41
1. 주요 지표	41
2. 2026 년 상반기 중국 방산 상장사 실적	42
3. 발사체·함정 제원	42
4. 국방동원법 주요 신설·개정 조문	43
5. 2026 년 6~9 월 중국군 대외 연합훈련	44
6. 원문 출처	44
7. 환율	45
8. 신규 용어 대조	45

실행 요약

2026 년 중국 방산의 표면과 이면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표면에서는 항공 완제기 3 사의 매출이 동시에 무너졌고, 이면에서는 대외 연합훈련이 여섯 방향에서 동시에 전개됐으며 군수 공급망을 법으로 묶는 국방동원법 개정이 완료됐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같은 사실의 앞뒤다. 지금 비어 있는 것은 인도(引渡)이지 의지가 아니며, 중국은 인도가 비어 있는 구간에 다음 사이클의 판매 조건을 미리 만들고 있다. 한국 방산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중국이 6 세대기를 언제 띄우는가"가 아니라 **"지금 열려 있는 수출 창(窓)이 어떤 신호에 닫히는가"**다.

핵심 인사이트 5

- ① **중국 항공 완제기의 인도가 2 년째 줄고 있다.** 선양항공기(AVIC Shenyang Aircraft, 中航沈飞) 600760.SH 의 2026 년 상반기 매출은 61 억 9,100 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줄었고, 시안항공기(AVIC Xi'an Aircraft, 中航西飞) 000768.SZ 는 26.9%, 청두항공기(AVIC Chengdu Aircraft, 中航成飞) 302132.SZ 는 26.7% 줄었다(각사 2026 년 반기보고서). 선양항공기는 2025 년 상반기에도 32.4% 감소했으므로 2 년 연속이다.
- ② **같은 기간 추진계·해양·소모성 화력은 늘었다.** AECC 항공동력(AECC Aviation Power, 航发动力) 600893.SH 가 47.2%, 중국선박(CSSC, 中国船舶) 600150.SH 가 26.0%(순이익 163.5%), 홍두항공(Hongdu Aviation, 洪都航空) 600316.SH 가 80.0%, 중병홍젠(中兵红箭) 000519.SZ 가 38.2% 늘었다. 인도의 무게중심이 완제 전투기에서 엔진·함정·탄약으로 옮겨갔다.
- ③ **중국은 무기를 카탈로그가 아니라 전개 실증으로 팔기 시작했다.** 2026 년 8 월 중국 공군은 J-16(歼-16) 편대를 YU-20A(运油-20A) 급유기 지원 아래 6,000km 이상, 아시아·아프리카 4 개국을 거쳐 약 9 시간 만에 이집트로 전개해 프랑스제 라팔 EM/DM, 러시아제 MiG-29M/M2 와 공중전 대항 훈련을 했다(신화망 2026-08-24). J-16 의 아프리카 전개는 처음이다. 같은 여름 아랍에미리트(UAE)·태국·벨라루스·싱가포르·러시아와도 연합훈련을 했다.
- ④ **국방동원법 개정으로 군수 공급망 관리가 법정 의무가 됐다.** 2026 년 8 월 28 일 제 14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 차 회의에서 개정된 국방동원법(国防动员法)은 제 46 조에 **군수품 산업망·공급망 안전평가**를, 제 7 조에 데이터 서비스 보장 제도를, 제 8 조에 신흥영역 동원역량 조항을 두고 202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국방부 게재 법률 전문, 2026-08-28).
- ⑤ **전개는 했지만 이전 실적은 아직 없다 — 그래서 창이 열려 있다.** SIPRI 자료로 보면 2021~25 년 중국은 세계 5 위 무기 수출국(점유 5.6%, 직전 5 년 대비 +11%)이지만 수출의 61%가 파키스탄 한 나라에 몰려 있고, 이집트의 3 대 공급국(프랑스 39%·독일 30%·이탈리아 18%)에는 들어 있지 않다. 같은 기간 한국은 세계 9 위(3.0%, +24%)로 올라섰다(SIPRI, 2026 년 3 월).

한국 안보·방산에 가장 중요한 변화 3 가지

변화	내용	한국에 대한 함의
경쟁의 축이 가격에서 운용 실증으로 이동	중국이 이집트·태국에 전력을 보내고, 아랍에미리트·벨라루스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훈련한다. 태국 훈련에서는 연합지휘센터를 세우고 무인기 운용을 주제로 좌담·현지 참관까지 했다	기체 단가 협상만으로는 방어되지 않는다. 훈련·정비·현지 조립·데이터링크 통합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
조달망이 양쪽에서 법으로 재편된다	중국은 국방동원법 개정(2026-10-01 시행)으로 군수 공급망 안전평가를 법정화했고, 미국은 1260H 명단(188 개 실체)의 직접 조달 금지를 2026 년 6 월 30 일 발동하고 2027 년 간접 조달까지 넓힌다	한국 협력사는 중국 소재·부품 노출과 미국 조달 자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2027 년 간접 조달 확대가 실사 부담의 분기점이다
대만 방면 압박의 수단이 바뀌었다	대만 국방부 공표 기준 2026 년 상반기 해방군 군용기 탐지는 1,334 소티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대규모 포위 연습도 없었으나, 공무선 활동은 늘었다. 대만군은 약 30 년 만에 처음으로 동부 기습 방어를 한광 연습에 편입했다	군용기 소티 감소를 긴장 완화로 읽으면 오판이다. 감시 지표를 항공 중심에서 준군사·법집행·해사 활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위험·기회 매트릭스

	시급성 높음(0~6 개월)	중요도 높음·시급성 낮음(6~24 개월)
기회	중동·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이전 실적이 비어 있는 구간 — 이집트·아랍에미리트 협상에서 훈련·정비·현지 조립 패키지 제시	저궤도 위성·발사 서비스에서 중국의 표준 무상 제공 전략에 맞설 한국형 협력 규격 설계
위험	미국 1260H 명단 관련 협력사 실사 부담, 중국 소재·부품 노출 점검 지연	중국 다음 인도 사이클(쓰촨함 취역, 차세대 전투기 양산 전환) 개시 시 중동·동남아 수주 조건의 급변

실행 액션 아이템 5

1. 방산 대기업(0~3 개월) — 이집트·아랍에미리트 협상 자료를 단가표에서 운용 패키지(훈련 소요·정비 주기·현지 조립 단계·데이터링크 통합)로 재작성한다.
2. 방산 대기업·중소 부품(0~3 개월) — 미국 1260H 명단 188 개 실체와 자사 1~2 차 협력사 목록을 대조하고, 2027 년 간접 조달 확대에 대비한 대체 조달 경로를 문서화한다.
3. 정책 입안자(3~6 개월) — 중국의 대외 연합훈련 개최지·회차·참가 장비를 정기 집계 항목으로 편입한다. 훈련 상대국과 무기 수출 상대국의 중첩이 수주 경쟁의 선행 지표다.
4. 우주·위성 사업자(3~6 개월) — 중국이 큐브위성 표준 탑재체를 협력국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한국이 제공 가능한 규격·데이터 서비스의 대안을 설계한다.
5. 전 주체(6~12 개월) — 아래 여섯 감시 지표를 정례 보고 체계에 넣는다. ① 선양·청두항공기의 3 분기·연간 매출 회복 여부 ② 이집트·아랍에미리트의 중국 전투기 실계약 공개 여부 ③ SIPRI 트렌드지표값에 중국의 중동·아프리카 이전이 등재되는지 ④ 쓰촨함(Sichuan, 四川舰) 취역과 차세대 전투기 공식 공개 시점 ⑤ 국방동원법 시행 후 공급망 안전평가 대상 목록의 공표 범위 ⑥ 대만 방면 군용기 소티의 하반기 반등 여부.

다음 호 전망

9 월 15~17 일 창설 20 주년을 맞는 제 13 회 베이징 상산포럼이 「신형기술 군사응용의 리스크와 관리통제」·「우주 안보 거버넌스의 향방」을 분과로 편성했고 12 월 7~13 일 제 16 회 주하이 에어쇼가 이어지므로, 다음 호는 중국이 규범과 전시라는 두 무대에서 무엇을 표준으로 세우려 하는지를 다룬다.

인도의 골짜기 — 2026 년 상반기 방산 실적이 보여준 것

중국 방산의 2026 년 상반기 실적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항공 완제기를 만드는 세 회사의 매출이 동시에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동안, 엔진과 함정과 탄약을 만드는 회사들의 매출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 이 갈림은 우연한 분기 변동으로 보기에 폭이 크고 방향이 일관된다. 이 리포트가 다루는 모든 현상 — 대외 전개, 급증, 법제 정비, 수출 방식의 전환 — 은 이 실적표에서 출발한다.

9 개사 3 개 기간 실적

각사 2026 년 반기보고서(2026 년 8 월 공시) 기준이며 단위는 억 위안이다. 발행일 기준 원화 환산은 1 위안 201.9 원(2026-09-07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이다.

기업(티커)	2025 상반기 매출	전년비	2026 1 분기 매출	전년비	2026 상반기 매출	전년비	2026 상반기 순이익	전년비
선양항공기 600760.SH	146.28	-32.4%	26.12	-55.2%	61.91	-57.7%	4.73	-58.4%
청두항공기 302132.SZ	207.02	-39.0%	59.46	+79.7%	151.67	-26.7%	7.09	-22.3%
시안항공기 000768.SZ	194.16	-4.5%	70.02	-17.0%	141.86	-26.9%	4.90	-28.9%
AVIC 헬리콥터 600038.SH	102.41	+25.3%	23.73	-0.1%	90.07	-12.0%	1.88	-33.6%
AECC 항공동력 600893.SH	140.98	-24.0%	70.77	+14.8%	207.55	+47.2%	1.46	+59.3%
중국선박 600150.SH	726.40	+101.7%	433.12	+54.9%	915.30	+26.0%	99.54	+163.5%
홍두항공 600316.SH	15.24	+11.8%	8.84	+73.5%	27.42	+80.0%	0.12	+171.9%
중빙홍젠 000519.SZ	21.93	+17.4%	17.43	+181.3%	30.30	+38.2%	0.37	+191.4%
레인보우 UAV 002389.SZ	8.11	-20.4%	3.73	+18.5%	8.91	+9.9%	0.75	(기저효과)

표의 정식 사명은 다음과 같다. 선양항공기(AVIC Shenyang Aircraft, 中航沈飞), 청두항공기(AVIC Chengdu Aircraft, 中航成飞), 시안항공기(AVIC Xi'an Aircraft, 中航西飞), AVIC 헬리콥터(AVIC Helicopter, 中直股份), AECC 항공동력(AECC Aviation Power, 航发动力), 중국선박(CSSC, 中国船舶), 홍두항공(Hongdu Aviation, 洪都航空), 중빙홍젠(中兵红箭), 레인보우 UAV(Aerospace CH UAV, 航天彩虹).

전자·부품 계열의 2026 년 상반기 매출과 전년비는 다음과 같다. AVIC 중기계(AVIC Heavy Machinery, 中航重机) 600765.SH 51.67 억 위안(-10.1%), AVIC 존혼(AVIC Jonhon Optronics, 中航光电) 002179.SZ

112.40 억 위안(+0.5%), 젠화테크놀로지(Zhenhua Technology, 振华科技) 000733.SZ 22.42 억 위안(-7.0%), 글라룬테크놀로지(Glarun Technology, 国睿科技) 600562.SH 17.27 억 위안(+0.3%), 청페이인테그레이션(Chengfei Integration, 成飞集成) 002190.SZ 10.99 억 위안(+10.8%, 순손실 0.59 억 위안).

이익률이 말하는 위치

같은 반기의 매출총이익률을 나란히 놓으면 각 회사가 밸류체인 어느 칸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기업	2026 상반기 매출총이익률	밸류체인 위치
젠화테크놀로지 000733.SZ	44.7%	군용 전자부품·집적회로
글라룬테크놀로지 600562.SH	43.8%	레이더·전자장비
AVIC 존혼 002179.SZ	28.8%	커넥터·광전 부품
AVIC 중기계 600765.SH	24.7%	단조·주조 소재
레인보우 UAV 002389.SZ	19.1%	무인기 완제
중빙홍젠 000519.SZ	18.5%	탄약·지상 병기
중국선박 600150.SH	17.4%	함정·상선
청두항공기 302132.SZ	11.0%	전투기 완제
선양항공기 600760.SH	10.6%	전투기 완제
AVIC 헬리콥터 600038.SH	9.5%	헬기 완제
AECC 항공동력 600893.SH	9.0%	항공엔진
시안항공기 000768.SZ	8.1%	수송기·특수기 완제
홍두항공 600316.SH	2.3%	훈련기·유도무기

완제기 조립은 이익률이 10% 안팎이고 부품·전자는 30~45%다. 중국 방산의 수익이 조립이 아니라 부품·전자에서 나온다는 구조는 이번 반기에도 그대로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완제기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그룹 전체의 이익 기반이 곧바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인도의 공백은 재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공백이다.

무엇이 실제로 줄었는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선양항공기다. 2026 년 상반기 매출 61 억 9,100 만 위안은 전년 동기의 절반에 못 미치고, 그 전년 동기(146 억 2,800 만 위안) 자체가 이미 32.4% 감소한 값이었다. 2 년을 이어 보면 2024 년 상반기 수준의 약 3 할에 해당한다. 1 분기만 보면 감소 폭이 55.2%였으므로 2 분기에도 회복이 없었다.

시안항공기는 상반기 141 억 8,600 만 위안으로 26.9% 줄었다. 1 분기 감소 폭 17.0%보다 상반기 누계 감소 폭이 더 크므로 2 분기가 1 분기보다 나빴다.

청두항공기는 성격이 다르다. 1 분기에는 오히려 79.7% 늘었으나 상반기 누계는 26.7% 감소로 돌아섰다. 산술적으로 2 분기 매출이 급감했다는 뜻이다. 이 회사 하나만 놓고 보면 **분기 인도 편중**이라는 설명이 가장 자연스럽다.

원인은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서두르면 안 된다. 세 가지 설명이 모두 성립하고, 공개 자료만으로는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세대 교체기의 인도 공백이다. 기존 기종의 생산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후속 기종이 아직 양산 전환에 이르지 못하면 조립 라인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비게 된다. 선양항공기의 2 년 연속 감소는 이 설명에 가장 잘 맞는다.

둘째, 군수품 가격 심사와 원가 감사에 따른 정산 지연이다. 중국은 군수품 조달 가격을 원가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고, 심사 기준이 바뀌면 이미 인도한 물량의 매출 인식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생산량은 줄지 않았는데 회계상 매출만 줄어든다. 각사 반기보고서 본문의 공식 설명 문구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셋째, 분기 인도 편중이다. 청두항공기의 1 분기 +79.7%와 상반기 -26.7%의 격차가 이 설명을 뒷받침한다. 방산 인도는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상반기 실적만으로 연간 추세를 단정하기 어렵다.

세 설명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3 분기와 연간 보고에서 갈린다. 그래서 이 항목을 감시 지표의 첫 줄에 둔다.

늘어난 쪽에도 유보가 필요하다

증가한 회사들의 숫자를 그대로 읽어서도 안 된다.

중국선박의 2025 년 상반기 매출 726 억 4,000 만 위안(+101.7%)은 중국선박중공업(CSIC, 中国重工) 흡수합병의 회계 반영이 크게 작용한 값이다. 따라서 2026 년 상반기의 +26.0%도 순수한 사업 성장으로 읽기보다는 합병 후 기준선 위에서의 증가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다만 순이익 99 억 5,400 만 위안(+163.5%)은 절대 규모가 크고 매출총이익률도 17.4%로 올라와 있어, 조선·함정 부문의 채산성이 개선된 신호로는 읽을 수 있다.

레인보우 UAV 의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기저가 0 에 가까웠던 데서 오는 착시이므로 비율이 아니라 **절대액 7,500 만 위안**으로 읽어야 한다. 매출도 8 억 9,100 만 위안으로 규모 자체가 작다. 무인기 완제 부문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홍두항공의 +80.0%는 절대 규모(27 억 4,200 만 위안)가 작고 매출총이익률이 2.3%에 그쳐 이익 기여도가 낮다. 다만 훈련기와 유도무기 계열의 물량이 늘고 있다는 방향 자체는 유의미하다.

중빙홍젠의 +38.2%는 탄약·지상 병기 쪽 수요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1 분기 +181.3%에서 상반기 +38.2%로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절대 매출은 30 억 3,000 만 위안으로 늘었다.

이 절의 결론

2026 년 상반기 중국 방산에서 확인되는 것은 **완제 전투기의 인도가 비고, 추진계·해양·소모성 화력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공백이 생산 능력의 문제인지 회계 인식의 문제인지는 아직 갈리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지금 중국은 완제기를 밖으로 많이 내보낼 형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다음 두 절의 주제가 된다 — 예산과 법제, 그리고 전개다.

예산과 법제 — 돈은 어디로 가고, 공급망은 어떻게 묶였나

인도가 비는 해에 국가는 조달 제도를 고친다. 2026 년 중국이 정확히 그렇게 했다. 예산은 11 년째 한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용도를 "신영역·신질 작전역량"으로 좁혔고, 국방동원법은 16 년 만에 개정돼 군수 공급망 관리와 데이터 동원을 법정 의무로 올렸다. 이 절은 2026 년 상반기 실적의 골짜기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제도 정비를 나란히 놓는다.

2026 년 국방 예산

항목	값	비고
전국 일반공공예산 국방지출	1 조 9,400 억 위안	전년 집행액 대비 +6.9%
중앙본급 국방지출	1 조 9,100 억 위안	전년 집행액 대비 +7.0%
한 자릿수 증가 지속	11 년 연속	2016~2026
2025 년 증가율(비교)	+7.2%	2026 년은 소폭 하향

1 조 9,400 억 위안은 2026 년 9 월 7 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1 위안 201.9 원)로 환산하면 약 391 조 7,000 억 원이다. 발표는 2026 년 3 월 10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대변인 장샤오강(张晓刚) 대교가 했다.

증액분의 용도로 공개 설명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국방·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 단계」 전략에 따라 기계화·정보화·지능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합동작전 체계를 최적화하고 신영역·신질(新域新质) 작전역량의 규모화·실전화·체계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신영역·신질 작전역량"은 무인·우주·전자기·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전력을 가리키는 중국 측 표현이고, 여기에 붙은 세 단어 — 규모화·실전화·체계화 — 는 시제를 담고 있다. 시범 단계를 지나 규모를 갖추고 실전 조건에서 쓰며 체계로 묶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15 차 5 개년 계획 건의가 "무인 지능 작전역량 및 반(反)무인 역량 건설 가속"을 명시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예산 증가율 자체는 억제돼 있다. 11 년 연속 한 자릿수이고 2026 년은 전년보다 오히려 낮다. 그러나 증가율이 낮다는 것과 배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앞 절에서 본 실적 갈림 — 완제기 감소, 엔진·함정·탄약 증가 — 은 총액이 아니라 배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타당하다.

국방동원법 개정 — 조문 단위로

2026 년 8 월 28 일 제 14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 차 회의가 국방동원법(国防动员法)을 개정했다. 원법은 2010 년 2 월 26 일 제 11 기 전인대 상무위 13 차 회의에서 제정됐으므로 16 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법은 14 장 82 조로 구성되며 부칙 제 82 조에 따라 **202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조문	내용	산업적 함의
제 4 조	국방동원 체계의 정보화·지능화 수준 제고, 국방동원 현대화 추진, 일체화 국가전략체계와 능력의 공고·제고	동원을 인력·물자 징발이 아니라 정보 체계로 규정한다
제 6 조	국가가 국방동원 능력 검증평가 기제를 수립하고 검증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동원 능력이 평가·점수화의 대상이 된다. 기업 단위 평가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
제 7 조	국방동원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서비스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데이터를 법에 따라 수집·사용하며 데이터 안전을 보장한다	민간 데이터가 동원 자원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제 8 조	선진 기술의 국방동원 응용을 추진하고 신흥영역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	상업 우주·인공지능·로봇 등 신흥 분야가 동원 대상 범주에 들어온다
제 46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서가 군수품 산업망·공급망 안전평가를 조직·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산업망·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전 수준을 높인다	공급망 안전평가가 법정 절차가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
제 47 조	군수품 연구개발·전환생산·증산·정비보장 임무를 맡은 단위는 설비·재료·부속품·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비축하고 전문기술대오를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연습을 조직한다	비축 대상에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명시됐다. 정기 연습은 감사 가능한 의무다
제 48 조	시장 기제의 역할을 중시하고 조직·개인의 참여를 장려한다. 군수품의 통용화·계열화·조합화, 군수품 정비보장의 사회화를 추진하며, 선진 군민 양용 기술·장비의 개발·응용을 지원하고 군민 표준 통용화 수준을 높인다	정비보장의 사회화 = 민간 기업이 군수 정비 시장에 들어온다
제 49 조	국방동원 실시 결정 후, 에너지·설비·재료·부속품·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단위는 군수품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 임무 수행으로 직접 경제손실을 입은 단위에는 국가가 보상한다	민간 공급자에 대한 우선 공급 의무와 보상 규정이 짝을 이룬다
제 51 조	군사·경제·사회 목표 및 수뇌기관 등 중요 목표의 등급별 방호 제도. 방호 표준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민간 인프라가 등급 방호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책임 조항(제 78~80 조)도 함께 정비됐다. 기업·사업단위·사회조직이 ① 국방동원 잠재력 통계자료 제공을 거부·지연하거나 부실 제출한 경우 ② 군수품 연구개발·전환생산·증산·정비보장 임무의 능력 비축을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전문기술대오를 규정대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③ 군사 조달을 거부·고의 지연하거나

납품한 군수품·용역의 품질이 조달 요구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강제이행, **벌금**이 가능하다. 의무에 이행 강제 수단이 붙었다는 점이 원법과의 차이이다.

두 사실을 겹쳐 읽으면

2026 년 상반기에 완제기 매출이 반토막 난 것과, 같은 해 8 월에 군수 공급망 안전평가가 법정화된 것은 서로 다른 방향의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 보면 자연스럽다. 인도가 몰려 있는 시기에는 제도를 흔들기 어렵다. 라인이 도는 동안에는 평가도 재편도 생산에 지장을 준다. 반대로 인도가 비는 구간은 조달 제도를 손보기 좋은 시기다.

제 46 조의 안전평가가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시행되는지는 시행 이후에 드러난다. 평가 대상 목록이 공표될지, 어느 수준의 협력사까지 내려갈지, 결과가 조달 자격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그 권한을 만들었다**는 사실까지다.

대칭에 놓인 미국의 조달 재편

같은 해 미국도 조달망을 법으로 좁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른바 1260H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갱신해 **188 개 중국 실체**를 올렸다. 2026 년 6 월 5 일 서명, 6 월 8 일 연방관보 제출, 6 월 10 일 공표의 순서였고, 직전 명단은 2025 년 1 월 7 일자였다. 보도에 따르면 20 여 개 기업이 새로 들어갔다.

효력의 시점이 중요하다.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2026 년 6 월 30 일부터 미국 국방부와 산하기관은 명단 기업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고, 1 년 뒤인 2027 년부터는 간접 조달까지 금지가 확대된다.** 한국 방산 협력사에 실질적 부담이 되는 것은 후자다. 자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공급망 어딘가에 명단 기업이 있으면 미국 국방부 계약에 영향을 받는다.

성격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다. 1260H 는 투자·조달 위험경고 명단이며,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이나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과는 다르다. 명단 등재 자체가 미국 부품·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지 않고, 공개시장에서 해당 기업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두 제도를 나란히 놓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자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법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자국 조달망에서 중국 실체를 법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방향은 반대지만 수단은 같다 — 조달 자격의 법제화다. 그 사이에 있는 한국 기업은 두 제도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급망 문서를 갖춰야 한다. 이 과제는 11 절 액션 플랜에서 다시 다룬다.

【공중】전개로 파는 무기 — 4 개 전선의 연합훈련

완제기 인도가 비어 있던 2026 년 여름, 중국 공군은 네 방향에서 동시에 훈련했다. 이집트로 나갔고, 태국으로 나갔으며, 아랍에미리트와 벨라루스는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여기에 해군의 싱가포르 훈련과 육군의 러시아 훈련까지 더하면 여섯 방향이다. 카탈로그에 실린 성능표가 아니라 실제로 날아가서 남의 하늘에서 대항 훈련을 하는 것 — 이것이 2026 년 중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다.

네 훈련을 같은 표에서

훈련	상대	개최지	회차	기간	중국 참가 장비	주요 과목
「문명의 매-2026」(文明之鷹-2026)	이집트	이집트 공군기지	제 2 회	2026-08-21 도착, 8 월 중순~9 월 초	J-16 전투기, YU-20A 급유기, KJ-500 조기경보기, Y-9LG 전자전기, Z-20K 구조헬기	공중전 전술, 제공작전, 전투탐색구조, 병력운용
「사냥매 방패-2026」(猎鹰盾牌-2026)	아랍에미리트	중국 신장 허톈(和田)	제 4 회	2026 년 8 월 하순~9 월 중순	공개 미기재	지휘 도상연습, 비행훈련, 실병 혼성편조 연습
「잉자-2026」(鹰击-2026)	태국	태국 우돈·돈므앙 기지	제 9 회	2026 년 하반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급유기, 헬기, 지대공 미사일 무기	연합지휘센터 운영, 지상 방공전력 기동배치, 인도주의 구조
「선잉-2026」(神鹰-2026)	벨라루스	중국 후베이(湖北) 공군 훈련센터	제 4 회	2026-08-12~24	공수부대, 무인장비	합동 도시 대테러, 경찰·반정찰, 탈취·방어, 소탕·고수, 전투사격, 낙하침투

출처는 중국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2026-08-27), 신화망(2026-08-14·08-24), 중국신문망(2026-08-26), 환구망 전제 국방부 발표(2026-08-21)다.

이집트 — 6,000km 를 날아가서 라팔과 붙었다

이집트 훈련의 세부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

중국 국방부는 2026 년 8 월 14 일 훈련 개최를 예고했고, 8 월 21 일(베이징 시간) 중국 공군의 여러 기종이 이집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편대는 6,000km 이상을 비행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4 개국을 거쳤으며 약

9 시간이 걸렸다. 설산·사막·만·오아시스 등 서로 다른 지형을 통과했고, YU-20A 급유기가 J-16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했다. **J-16의 아프리카 전개는 처음이다.**

8 월 23 일부터 비행훈련이 시작됐다. 1 대 1 과 2 대 2 의 기초적인 공중전 대항에서 출발해 점차 체계화된 합동작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훈련 과목은 공중전 전술, 제공작전, 전투탐색구조, 병력운용 연습이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상대 기종**이다. 이집트 측은 프랑스제 라팔 EM/DM 과 러시아제 MiG-29M/M2 를 냈다. 즉 중국 전투기가 서방과 러시아의 현역 기종과 같은 하늘에서, 그것도 고온 사막 환경에서 대항 훈련을 했다. 잠재 구매국에게 이보다 직접적인 증명은 없다. 카탈로그의 추력·항속거리·레이더 탐지거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남의 기지에서 남의 전투기와 붙어 본 기록은 카탈로그에 없다.

중국이 파견한 편성 자체도 메시징다. 전투기 한 종만 보낸 것이 아니라 급유기(YU-20A)·조기경보기(KJ-500)·전자전기(Y-9LG)·구조헬기(Z-20K)를 함께 보냈다. 이는 개별 기체가 아니라 **체계를 판매 대상으로 제시**한다는 뜻이다. 구매국 입장에서 전투기 한 종을 사는 것과 조기경보·급유·전자전을 묶은 패키지를 사는 것은 예산 규모와 종속 정도가 전혀 다르다.

같은 시기 중국 공군의 여러 기종이 **제 2 회 이집트 국제항공전시회**에도 참가했다. 훈련과 전시가 같은 나라에서 연달아 열린 셈이다.

개최지의 비대칭

네 훈련을 개최지 기준으로 나누면 성격이 갈린다.

중국이 나간 경우(이집트·태국) — 증명하는 것은 전개 능력이다. 급유기를 붙여 대륙을 건너고, 현지 기지에서 정비·보급을 받으며, 시차와 기후가 다른 환경에서 소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집트 사례에서 확인된 6,000km·4 개국·9 시간의 수치가 그 답이다.

중국으로 불러들인 경우(아랍에미리트·벨라루스) — 증명하는 것은 훈련 인프라와 통제 환경이다. 아랍에미리트 훈련은 신장 허텐에서 8 월 하순부터 9 월 중순까지 열렸고 지휘 도상연습·비행훈련·실병 혼성편조 연습으로 구성됐다. 양국 공군의 **네 번째** 시리즈 훈련이다. 벨라루스 공수부대 훈련은 8 월 12 일부터 24 일까지 후베이의 공군 훈련센터에서 기초 강훈·협동 정훈·종합 연습의 3 단계로 진행됐고, 이 역시 「선잉」 시리즈의 **네 번째** 훈련이다(중국 국방부·해방군보, 2026-08-25).

두 방식은 서로를 보완한다. 나가서 하는 훈련은 잠재 구매국에게 성능을 보이고, 불러들이는 훈련은 상대국 인력을 중국의 훈련 체계 안으로 들인다. 후자는 장비 판매보다 오래 남는다. 조종사와 정비사가 중국식 절차와 교범에 익숙해지면 다음 구매 결정의 기준선이 달라진다.

태국 훈련에서 드러난 것

태국과의 「잉지-2026」은 **아홉 번째** 연합훈련이다. 아홉 번을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이번 훈련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지휘 융합이 깊어졌다 — 양측이 **연합지휘센터를 설치**하고 기획·설계·조정·실시를 주도했다. 둘째, 협동이 긴밀해졌다 — 양측이 지상 방공전력의 기동배치 연습을 함께 조직했고, 중국 측은 **의료 구형기**를 보내 인도주의 구조 연습에 참가시켜 연합 체계의 링크를 검증했다. 셋째, 교류 내용이 넓어졌다 — 인재 양성과 **무인기 전력 운용**을 주제로 좌담과 현지 참관을 했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 **지대공 미사일 무기**까지 보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공군 훈련에 지상 방공 자산을 함께 전개한 것은 항공기 단품이 아니라 **방공 체계 전체**를 시연하려는 구성이다.

벨라루스 훈련에도 **무인장비 운용** 과목이 들어갔다. 두 훈련 모두에서 무인 전력이 별도 항목으로 다뤄졌다는 사실은, 15 차 5 개년 계획 건의의 "무인 지능 작전역량 건설 가속"이 대외 훈련 콘텐츠로 내려와 있다는 뜻이다. 이 흐름은 다음 절에서 지상 영역과 함께 다룬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 — 관측 수준으로만

공중 영역에는 널리 유통되지만 공개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 이 리포트는 그것들을 지우지 않고 등급을 분명히 한다.

이집트의 중국 전투기 도입설. 2024 년 말부터 이집트가 J-10CE 40 대를 약 40 억 달러에 도입했다는 보도가 반복됐고, 2026 년 8 월에는 J-10 40 대에 J-35 24 대를 더한 패키지 논의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025 년 2 월 "이집트가 첫 J-10 을 인수했다"는 설을 부인**했고 이후 공식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집트 정부·군의 확인 발표도 없다. 결정적으로 SIPRI 가 2026 년 3 월 공표한 2021~25 년 무기 이전 자료에서 이집트의 상위 3 대 공급국은 프랑스(39%)·독일(30%)·이탈리아(18%)이고 중국은 들어 있지 않다. **인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 자료에 흔적이 남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설로만 다루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9 절에서 다루듯 한국의 창은 아직 열려 있다.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비공식 군사매체들은 J-36 으로 불리는 기체의 첫 공개 비행이 2024 년 12 월 26 일, 3 호기가 2025 년 12 월 25 일, 4 호기가 2026 년 1 월 30 일에 관측됐고 5 호기가 시험비행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J-50 으로 불리는 다른 기체는 첫 비행 이후 후속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정보는 **모두 비공식 관측이며 중국 정부·군의 공식 발표는 없다.** 형상·제원·명칭 어느 것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이 리포트는 프로그램의 존재 가능성과 시험 단계 진입 가능성까지만 언급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양산 전환에 이르는 시점은 2 절에서 본 인도 공백이 끝나는 시점과 겹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11 절 감시 지표에 들어가는 이유다.

이 절의 결론

2026 년 중국 공군의 대외 활동은 판매 방식의 전환으로 읽어야 한다. 인도할 완제기가 부족한 해에 중국은 성능표 대신 **운용 기록**을 만들었다. 6,000km 를 날아가 라팔·MiG-29 와 붙은 기록, 아홉 번째 연합지휘센터를 운영한 기록, 상대국 조종사를 자국 훈련장에 들인 기록은 다음 인도 사이클이 시작될 때 그대로 판매 자료가 된다.

【해상】3 항모 체제와 076 의 시간표

공중 영역에서 인도가 비는 동안 해상 영역은 반대로 채워졌다. 중국선박(CSSC, 中国船舶) 600150.SH 의 2026 년 상반기 매출이 915 억 3,000 만 위안(+26.0%), 순이익이 99 억 5,400 만 위안(+163.5%)이라는 숫자는 앞 절에서 본 완제기 3 사의 감소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함정 건조는 지금 중국 방산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라인이다.

3 항모 체제의 현재 위치

푸젠함(Fujian, 福建舰)은 2025 년 11 월 5 일 취역했다. 재래식 동력에 전자기 캐터펄트를 결합한 항모로, 랴오닝함(辽宁舰)·산둥함(山东舰)에 이어 중국 해군은 3 항모 체제에 들어갔다.

관영 보도가 전하는 2026 년의 목표는 "기본 전투력 형성에서 완전 전투력 형성으로"다. 이 표현은 중국 측이 항모 전력화 단계를 구분할 때 쓰는 어휘이며, 2026 년을 푸젠함 전투력 생성의 결정적 해로 잡고 있다는 뜻이다.

취역 이후 확인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여러 형식의 함재기 — J-35, J-15T, J-15DT, 그리고 조기경보기 KJ-600 — 가 다수의 사출과 착함 훈련을 마쳤다. 항모 전단은 편대 항행과 연합 수색구조를 포함한 다과목 훈련을 했고, 타이완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의 여러 해역에서 과학연구 시험과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함재기 종류가 늘었다는 것은 캐터펄트 운용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지만, 사출 횟수·소티 지속률·야간 운용 능력 같은 실질 지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완전 전투력 형성"의 판정 기준도 중국 측 내부 기준이다. 따라서 2026 년 안에 푸젠함이 원해 전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전투력 생성 단계에 있다는 사실까지다.

항목	푸젠함	비고
취역	2025-11-05	재래식 동력 + 전자기 캐터펄트
2026 년 목표	기본 전투력 → 완전 전투력 형성	관영 보도 인용
확인된 함재기	J-35, J-15T, J-15DT, KJ-600	사출·착함 훈련 완료
활동 해역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과학연구 시험·훈련

쓰촨함 — 076 형의 시간표

076 형 상륙강습함 1 번함 쓰촨함(Sichuan, 四川舰)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24 년 12 월 27 일 상하이에서 진수·명명식을 했고, 12 월 29 일 부두로 이동해 의장·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첫 해상시험은 2025 년 11 월 14 일에 시작해 11 월 16 일에 마쳤다. 만재배수량은 4 만 톤을 넘고, 상륙함에

전자기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장비를 이식한 세계 최초의 함정이다. 함교는 이중 아일랜드 구조로, 전방 아일랜드가 항해 지휘를, 후방 아일랜드가 항공 관제를 맡는다.

취역 시점에 대해서는 2026 년 말에서 2027 년 초 사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는 군사 전문가와 해외 매체의 전망이며 중국 측 공식 발표는 없다. 이 리포트는 그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대신 **쓰촨함 취역을 감시 지표로 둔다**(11 절). 이유는 단순하다. 4 만 톤급 함정에 캐터펄트를 얹은 목적은 고정익 무인기의 함상 운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서태평양의 항공 자산 계산이 달라진다.

싱가포르 훈련 — 무엇을 함께 하는가

중국과 싱가포르 해군의 「해상협력-2026」이 2026 년 9 월 5 일 광둥성 잔장(湛江)의 군항에서 개막했다. 양국 해군의 **다섯 번째** 연합훈련이다.

훈련은 두 단계로 짜였다. 9 월 5~7 일은 기지 단계로 도상 검토와 전문 교류를 했고 잠수 작업, 잠수함 수색구조, 수중 의학이 다뤄졌다. 9 월 8~9 일은 해상 단계로 잔장 인근 해역에서 함포 사격, 통신 기동, 해상 보급, 연합 수색구조, 의료 후송을 실시했다. 중국은 미사일호위함 **다리함(大理)**을, 싱가포르는 호위함 **스테드패스트함(Steadfast)**을 냈다.

과목의 성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잠수함 구조, 의료 후송, 연합 수색구조는 전투 과목이 아니라 **공공재 성격의 해양 안전 활동**이다. 앞 절에서 본 공군 훈련이 공군전 대항을 포함한 것과 대조된다. 중국은 상대에 따라 훈련의 성격을 조절한다 — 이집트에는 전투 능력을, 싱가포르에는 협력 능력을 보여 주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미국과도 정례적으로 훈련하는 나라이므로 이 선택은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마찰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2026 년 여름 남중국해와 그 주변에서 관측된 마찰들은 함정 대 함정의 형태가 아니었다.

미국 기업 시새츠(Seasats)의 무인수상정이 루손섬 서북 해역에서 중국 해군 052D 형 구축함을 근접 촬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측의 잔꾀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 군사 안전은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며 선을 넘어 불장난을 하면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8 월 21 일에는 필리핀 소형기 3 대가 황옌다오(黄岩岛) 상공에 진입했고 중국 남부전구가 해·공 병력을 조직해 추적 감시와 경고 방송을 했다. 중국 측은 필리핀이 해상 방향의 시도가 거듭 좌절되자 **공중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런아이자오(仁爱礁)에 좌초해 있는 필리핀 함정에 대한 생활물자 보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건축자재 반입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주체가 정규 전투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인수상정, 소형 항공기, 좌초 함정에 대한 보급선이 마찰의 접점에 있다. 이는 6 절에서 다룬 대만 방면의 변화 — 군용기 소트는 줄고 공무선 활동은 늘었다 — 와 같은 방향이다. 해상 영역에서 중국을 관찰하는 지표를 함정 톤수와 전투함 척수에만 두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놓친다.

한반도 — 북한 강건함 취역

같은 시기 한반도 수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이 최현급 구축함 2 번함 **강건함(姜健)**을 2026 년 9 월 6 일 원산항에서 취역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고, 조선노동당 간부 조춘룡은 이 함정이 다단계 전문 평가 시험을 거쳐 "전투 성능과 신뢰성이 종합적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통해 핵전투체계의 다방위·고효율 운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한 중국 매체의 전언이며, 배수량과 무장 구성의 세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해상 환경에서 이 두 흐름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중국의 3 함모 체제는 서태평양 전역의 항공 전력 배치를 바꾸는 문제이고, 북한 구축함의 계열화는 서해·동해에서 직접 마주치는 수상 전력의 문제다. 그러나 두 흐름이 겹치는 지점이 있다. **양쪽 모두 수상함에 항공·미사일 자산을 얹어 사거리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캐터펄트로 함재기의 이륙 중량을 늘렸고, 북한은 구축함을 핵전투체계의 운반 수단으로 규정했다. 한국 해군의 대응 계산에서 상대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가 쓸 수 있는 거리가 변수가 되는 국면**이다.

이 절의 결론

해상 영역은 다섯 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와 실적이 함께 늘고 있는 영역이다. 다만 그 성장의 일부는 중국선박의 중국선박중공업 흡수합병에 따른 회계 효과이므로 순수 성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 함모 전력화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마찰의 접점이 정규 전투함에서 무인·항공·법집행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무인·화력의 재배분, 그리고 대만 압박 방식의 변화

지상 영역에서 확인되는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재무제표에 있고, 다른 하나는 대만 국방부의 집계표에 있다. 앞의 것은 소모성 화력과 훈련 계열로 물량이 옮겨갔다는 사실이고, 뒤의 것은 대만을 압박하는 수단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두 신호는 방향이 같다 — 중국은 눈에 크게 띄는 수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단을 늘리고 있다.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재배분

2 절의 표에서 지상·소모품 계열만 다시 뽑으면 다음과 같다.

기업(티커)	2026 상반기 매출	전년비	매출총이익률	계열
중빙홍젠 000519.SZ	30.30 억 위안	+38.2%	18.5%	탄약·지상 병기
홍두항공 600316.SH	27.42 억 위안	+80.0%	2.3%	훈련기·유도무기
레인보우 UAV 002389.SZ	8.91 억 위안	+9.9%	19.1%	무인기 완제
선양항공기 600760.SH	61.91 억 위안	-57.7%	10.6%	전투기 완제

중빙홍젠의 증가는 1 분기에 181.3%였다가 상반기 누계 38.2%로 낮아졌으므로 2 분기에는 증가 속도가 꺾였다. 그럼에도 절대 매출은 늘었다. 홍두항공의 80.0% 증가는 규모가 작고 이익률이 2.3%에 그쳐 수익 기여는 미미하지만, 훈련기와 유도무기 계열의 물량이 늘고 있다는 방향 자체는 유의미하다.

이 조합 — 완제 전투기는 반토막, 탄약·훈련기·무인기는 증가 — 이 뜻하는 바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고가 저회전 품목에서 저가 고회전 품목으로 조달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소모성 화력과 훈련 자산은 생산 라인을 계속 돌게 하고 숙련을 유지시킨다. 세대 교체기의 공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합리적이다.

무인 전력의 제도적 위치

15 차 5 개년 계획 건의는 "무인 지능 작전역량 및 반(反)무인 역량 건설을 가속한다"고 명시했다. 무인 전력과 대(對)무인 전력을 한 문장에 함께 넣은 것이 특징이다.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같은 항목으로 묶었다는 것은, 중국이 무인 위협을 자국이 쓸 도구인 동시에 자국이 받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방향은 예산 설명과도 맞는다. 2026 년 국방지출 증액의 두 번째 용도로 제시된 "신영역·신질 작전역량의 규모화·실전화·체계화"에서 신영역의 상당 부분이 무인 영역이다. 그리고 앞 절에서 본 대로 태국·벨라루스 연합훈련에서 무인기 운용과 무인장비 운용이 각각 별도 과목·의제로 다뤄졌다. 규칙 문서에서 예산 설명으로, 다시 대외 훈련의 콘텐츠로 내려온 셈이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체계로는 「아틀라스(Atlas)」로 불리는 무인 군집 작전체계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군집 2 형 지상전투차, 지휘통제차, 지원차로 구성되며, 트럭에서 수십 대의 무인기를 급속 발진시켜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공격 임무를 자동 분배하는 방식이다. 다만 배치 규모와 실전 운용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해외 군사매체 인용 보도로 중국 기업이 경량 자폭 무인기 100 만 대를 수주해 2026 년에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유통되지만, 발주처와 계약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측 수준의 정보로만 다룬다**. 다만 수량의 진위와 별개로, 소모성 무인기를 대량 조달하려는 방향 자체는 위의 기획·예산·훈련 신호와 어긋나지 않는다.

생산 저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보인다. 항텐즈자오(航天智造)의 군용 폭파재 생산라인 자동화 개조 공사가 2026 년 9 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달성 연도 예상 매출은 약 1 억 5,000 만 위안으로 공시됐다. 규모는 작지만 소모품 생산 능력의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만 방면 — 압박의 수단이 바뀌었다

대만 국방부가 공표한 집계는 통상적인 예상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2026 년 상반기에 대만이 탐지한 해방군 군용기는 1,334 소티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대규모 대만 포위 연습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국 공무선의 활동은 오히려 늘었다.

이 조합을 긴장 완화로 읽으면 오판이다.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해석은 다르다. 중국이 해사(海事)·과학연구 같은 명목의 활동을 통해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상대의 대응 출격을 부르지만, 해경·해사 선박의 상시 활동은 주목도가 낮은 대신 누적된다. 법적 주장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다.

대만군의 대응도 함께 봐야 한다. 대만군은 **약 30 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동부에 대한 기습 방어"를 한광(汉光) 연습 내용에 편입했다**. 서쪽 해협이 아니라 동쪽 태평양 방면을 위협 축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앞 절에서 본 항모 전력화와 직접 연결된다. 항모가 대만 동쪽에서 작전하면 대만의 방어 정면은 하나가 더 늘어난다.

중국 측 인식도 같은 방향에서 표현됐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대만 섬 동쪽 해역에서 연습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은 대만 섬 동쪽 해역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한다"**고 답했다. 대만 동쪽 해역을 자국 관할 수역의 연장으로 규정하는 논리다.

주변의 군비 흐름

같은 시기 역내에서 확인된 군비 관련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	내용	시점
대만	2027 년도 총예산안 통과, 방위지출이 사상 처음 1 조	2026-08-20

	신타이완달러를 넘었다. 2026 년도 대비 1,730 억 신타이완달러 증가(+18.2%), 전체 세출의 29%	
대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F-16V 66 대 중 첫 인도분 단좌형 2 대가 출발했다	2026 년 8 월
일본	방위성이 2027 년 대규모 확대 개편을 계획하고 3 개 부서를 신설하며,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2026 년 8 월 보도
일본·호주	호주 영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데 합의했다	2026 년 8 월 보도

이상은 중국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2026-08-27)에서 기자 질의와 대변인 답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며, 각 항목의 1 차 출처는 대만 행정기구·미국·일본 방위성 발표다. 중국 측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재군사화"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세 흐름 — 중국의 압박 수단 전환, 대만의 예산 급증과 방어 정면 확장, 일본의 편제 개편과 장거리 타격 추구 — 은 서로를 밀어 올린다. 이 상승 작용이 한국의 판단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11 절에서 다룬다.

이 절의 결론

지상 영역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조달의 무게중심이 고가 저회전 품목에서 소모성 화력·훈련 자산·무인 전력으로 옮겨갔다. 둘째, 대만 방면의 압박 수단이 군용기에서 준군사·법집행·해사 활동으로 옮겨갔다. 한국이 중국의 군사 활동을 관측하는 지표를 항공 소티 수에만 두면, 소티가 줄어드는 동안 실제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놓치게 된다.

【우주】재사용 발사체·저궤도 별자리·유인 월면

2026 년 여름 중국 우주 부문에서 일어난 일은 앞의 네 영역과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는 공백이 없었다. 오히려 8 월 19 일부터 9 월 5 일까지 3 주도 안 되는 기간에 궤도급 발사체 1 단의 육상 회수 성공, 새 액체 발사체의 첫 비행 성공, 국제 큐브위성 협력 계획의 공식 착수가 잇달았다. 이 영역의 사실은 대부분 공식 발표와 1 차 자료로 확인된다.

재사용 —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2026 년 8 월 19 일 랜드스페이스(LandSpace, 蓝箭航天)의 주궤-3(Zhuque-3, 朱雀三号) 발사체가 1 단 회수에 성공했다. 중국이 궤도급 발사체의 1 단을 착륙다리 방식으로 회수한 첫 사례이자 육상에서 회수한 첫 사례다.

회수 방식은 전개식 착륙다리를 쓰는 것으로, 반작용 제어계와 그리드핀, 착륙 지지대를 조합해 수직으로 되돌아왔다. 이는 첫 시도가 아니다. 2025 년 12 월 3 일의 첫 회수 시도에서는 1 단이 회수 과정에서 이상 연소를 일으켰다.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셈이다.

항목	주궤-3
전장	66.1m
이륙질량	약 570 톤
이륙추력	7,542kN
추진제	액체산소-메탄
기체 재질	스테인리스강
회수 방식	전개식 착륙다리, 육상 회수
회수 성공	2026-08-19(2 차 시도)
개발사	랜드스페이스

2 주 뒤인 9 월 1 일에는 갤럭시에너지(Galactic Energy, 星河动力)의 팔라스-1(Pallas-1, 智神星一号)이 첫 비행에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발사는 주취안 동평 상업항천 혁신시험구에서 이뤄졌고, 이 발사체는 설계상 25 회 이상의 재사용을 목표로 한다. 갤럭시에너지는 고체 발사체로 상업 발사 실적을 쌓아 온 기업이므로, 이번 성공은 고체와 액체를 함께 운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보도로 전해지는 제원은 2 단 구성, 전장 52m, 코어 직경 3.35m, 이륙질량 약 283 톤, 이륙추력 350 톤급, 저궤도 탑재 능력 5~7 톤이다.

두 사건을 함께 읽으면 중국 상업 발사 부문이 재사용 검증 단계에 실제로 진입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회수와 재비행은 다른 문제다. 회수된 1 단이 실제로 다시 날아 궤도에 도달하는 것까지 확인돼야 비용 구조가 바뀐다. 그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리포트는 그것을 감시 지표로 남겨 둔다.

발사 밀도 — 누적 번호가 말해 준다

발사 횟수는 발사체 산업의 체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 준다.

2025 년 중국의 발사는 87 회였고 그중 민영기업이 23 회를 맡았다. 상업 발사 공위는 18 개가 운영 중이고 7 개가 건설 중이며, 하이난 상업항천발사장 2 기 프로젝트는 2026 년 춘절 전 발사대 주체 구조 준공을 목표로 했다.

2026 년 여름의 두 발사를 보면 밀도가 드러난다.

발사	일시	발사장	임무	창정 시리즈 누적
창정-8A(长征八号甲)	2026-08-04 16:52	하이난 상업항천발사장	위성인터넷 저궤도 제 23 조 위성	제 661 차
창정-6C(长征六号丙)	2026-08-25 11:21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	1 발 7 성	제 665 차

21 일 사이에 누적 번호가 661 에서 665 로 늘었다. 즉 3 주에 4 회다. 이 속도가 연중 유지된다면 연간 발사는 60 회를 넘는다. 창정 계열만 세었을 때의 수치이므로 민영 발사체를 더하면 더 늘어난다.

창정-8A 의 8 월 4 일 발사에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 성능 개량 후 첫 전(全)계통 검증이었고, "직행 급행(直达快车)" 기능을 처음 구현했다. 위성은 항천과기그룹 5 원이, 발사체는 1 원이 총괄 개발했다. 창정-6C 의 8 월 25 일 발사에는 중국과학원 계열 위성 2 기, 무뎬(木铎)-1A·1B, 바이(八一)-04 호, 갤럭시스페이스(GalaxySpace, 银河航天) 위성, 태국 큐브셋 등 7 기가 실렸다. 마지막 위성이 태국 것이라는 점은 뒤에서 다룰 국제 협력 구도와 이어진다.

저궤도 별자리

별자리	현황	계획
첸판(Qianfan, 千帆)	2026 년 6 월 5 일 기준 재궤도 200 기. 6 월 4 일 창정-6A 로 11 조(타이위안), 6 월 5 일 창정-8 로 12 조(하이난 상업발사장)	1 단계 324 기
귀왕(GW, 国网)	누적 150 기 이상 발사. 2026 년 3 월 13 일 창정-8A 로 저궤도 20 조(하이난)	2027 년 400 기 → 2029 년 말 약 1,300 기 → 2035 년 약 13,000 기

첸판의 1 단계 324 기 목표 시한은 2026 년 7 월이었다. 발행일 기준 달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6 월 초 200 기에서 한 달여 만에 124 기를 더 올려야 하는 일정이었으므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두 별자리의 규모 계획을 합치면 2035 년까지 1 만 기를 크게 넘는다. 이 숫자가 실현되는지와 별개로, **계획 자체가 이미 궤도 자원과 주파수 신고를 선점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유인우주와 월면

중국유인우주국(CMSA, 中国载人航天工程办公室)이 2026 년 2 월 27 일 발표한 그해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6 년에는 **유인비행 2 회와 화물선 보급 1 회**를 수행한다. 홍콩·마카오 지역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저우 23 호 승조원 가운데 1 명은 1 년 체류 시험을 한다**. 1 년 체류는 장기 유인 활동의 생리·심리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고, 월면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 준비로 읽힌다.

국제 협력 항목도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우주비행사를 선발했고, **파키스탄 우주비행사 1 명이 탑재체 전문가 자격으로 단기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9 절에서 보듯 중국 무기 수출의 61%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기도 하다.

유인 월면 탐사의 목표는 **2030 년 이전 중국인의 첫 월면 착륙**이다. 주력 비행 제품은 창정-10 호(长征十号) 발사체, 멩저우(Mengzhou, 梦舟) 유인우주선, 란웨(Lanyue, 揽月) 월면착륙선 세 가지다. 발표 시점까지 완료된 대형 시험은 멩저우의 무고도 탈출, 란웨의 착륙·이륙 검증, 창정-10 의 계류 점화, 창정-10 의 저고도 시연 검증, 멩저우의 최대동압 탈출비행이다. 2026 년의 중점은 원창(文昌) 발사장의 월면 임무 부대시설 건설과 지상 측정통제·착륙장 지원 계통 구축이다.

군사적 함의 — 절제해서 읽는다

이 절의 사실 대부분은 민간 프로그램이다. 상업 발사체와 유인우주는 국방 예산 항목이 아니고, 군사 전용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안보 관점에서 짚어야 할 지점이 하나 있다.

발사체 회수와 재사용이 실현되면 위성 손실 시의 재구성(reconstitution) 비용과 주기가 낮아진다. 현재 위성 자산의 취약성 계산은 "잃으면 대체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비싸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위성 자산을 위협하는 쪽의 계산도 함께 바뀐다. 대체가 빠르고 싸면 파괴의 효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가 저궤도 별자리에도 적용된다. 수백 기 규모의 별자리는 개별 위성의 손실에 둔감하다. 귀왕이 계획대로 2029 년 말 1,300 기 규모에 이르면, 통신·데이터 중계 능력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 주에 4 회라는 발사 밀도, 회수 성공, 재사용 25 회를 목표로 설계된 신형 발사체, 그리고 계획된 별자리 규모를 함께 놓으면 방향은 분명하다. **중국은 우주 자산을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에서 "많고 보충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중이다**. 이것이 한국의 경찰·감시 자산 운용 가정에 갖는 함의는 11 절에서 다룬다.

【사이버·전자전】스펙트럼·인지 전자전, 그리고 데이터 동원

다섯 영역 가운데 공개 정보가 가장 적은 곳이 사이버·전자전이다. 부대 편제, 장비 제식명, 실전 운용 실적 어느 것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역을 다룰 때 흔히 두 가지 잘못이 일어난다.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능력을 확정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역 전체를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이 절은 **확인 가능한 것을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만 다루되, 확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확인되는 것 ① — 대(對)무인 체계의 개념 전환

2026 년 2 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무인기 대응장비 생산지침은 **인지 전자전(cognitive electronic warfare)**과 **자율 협동 방어**를 차세대 대무인 체계의 핵심 역량으로 처음 명시했다. 인지 전자전은 사전에 저장된 위협 신호 목록에 의존하는 대신, 처음 마주친 신호를 현장에서 분석해 대응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접근이다.

이 문서가 중국 국방을 다루는 리포트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대무인 역량이 **양측 모두의 우선순위로 동시에 올라왔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의 15 차 5 개년 계획 건의 역시 "무인 지능 작전역량 및 반(反)무인 역량 건설 가속"을 한 문장에 담았다. 무인기가 싸지고 많아질수록 그것을 막는 수단의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미사일 한 발로 수천 달러짜리 무인기를 잡는 교환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수단과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저비용 대응으로 무게가 옮겨간다.

확인되는 것 ② —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의 개념 틀

중국지휘통제학회(中国指挥与控制学会)가 공개한 논고들은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을 **이용·공격·방호·관리의 네 축**으로 정리한다.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신 보장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규정하는 관점이다.

같은 논고에서 제시되는 구상 가운데 하나는, 양자통신 링크를 통해 함재 전자전 체계와 조기경보기·전투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 공격을 협동 실시한다는 것이다. 육·해·공·우주 플랫폼 사이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그림이다.

여기서 서술의 등급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학회 논고에 제시된 개념 구상이며, 해당 능력이 실제로 배치·운용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런 구상이 공개 학회 채널로 유통된다는 사실 자체는 연구 방향의 지표로 읽을 수 있다. 4 절에서 본 이집트 전개에 Y-9LG 전자전기가 포함됐다는 점, 태국 훈련에서 연합지휘센터를 세워 지휘 융합을 시연했다는 점을 함께 놓으면, 플랫폼 간 정보 융합이 실제 훈련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은 추정할 수 있다.

본론은 법제 쪽이다 — 데이터가 동원 자원이 됐다

이 영역에서 2026 년에 실제로 바뀐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제도**다.

3 절에서 본 국방동원법 개정에는 사이버·정보 영역과 직결되는 조문이 셋 들어갔다.

조문	내용	사이버·전자전 관점의 의미
제 4 조	국방동원 체계의 정보화·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국방동원 현대화를 추진한다	동원의 대상이 인력·물자에서 정보 체계로 확장된다
제 7 조	국방동원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서비스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국방동원과 밀접한 데이터를 법에 따라 수집·사용하며 데이터 안전을 보장한다	민간 데이터가 동원 자원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제 47 조	군수품 임무를 맡은 단위는 설비·재료·부속품·기술· 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비축하고 전문기술대오를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연습을 조직한다	비축 목록에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 정기 연습은 감사 가능한 의무다

제 7 조가 이번 개정에서 사이버 영역에 갖는 무게는 크다. 종래 국방동원의 대상은 인력·차량·선박·통신설비 같은 물리적 자원이었다. 여기에 데이터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동원의 성격이 달라진다. 어떤 데이터가 "국방동원과 밀접한" 것인지, 수집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하위 규정에서 갈릴 문제이지만, **법률이 그 권한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확정적이다.**

제 47 조에서 비축 목록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자는 창고에 쌓아 두면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버전·라이선스·운용 인력이 함께 유지돼야 한다. "정기적으로 연습을 조직한다"는 문구가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3 절에서 본 법률책임 조항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강제이행, 벌금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2026 년 중국은 사이버·전자전 영역에서 **능력의 공개적 증명이 아니라 후방 기반의 법제화**를 진행했다. 이는 앞의 네 영역에서 확인된 패턴 — 인도가 비는 구간에 제도를 정비한다 — 과 정확히 같다.

규범의 장(場)을 세우는 움직임

또 하나 확인되는 것은 중국이 신흥 기술의 군사 이용을 논의하는 자리 자체를 자기 쪽에 만들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 국방부는 2026 년 8 월 27 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 13 회 베이징 상산포럼을 9 월 15~17 일 베이징 국제회의중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는 「안정 공감대를 모으고 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촉진한다」이며, 전체회의의 4 개와 병행 분과 8 개로 구성된다. 분과 주제 가운데 이 절과 직결되는 것이 둘이다.

· 「**신흥기술 군사응용의 리스크와 관리통제**」

· 「**우주 안보 거버넌스의 향방**」

여기에 「해상통로 안전과 해양안보 거버넌스」가 더해진다. 올해는 상산포럼 창설 20 주년이며, 제 4 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이 병행 개최된다.

신형 기술의 군사 이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는 영역이다. 규범이 비어 있는 곳에서는 **먼저 의제를 설정하는 쪽이 유리**하다. 인공지능의 무기화, 자율 무기의 인간 통제,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의 허용 범위 같은 문제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은, 4 절에서 본 훈련 외교, 10 절에서 볼 표준 무상 제공과 같은 계열의 행동이다. 장비를 팔기 전에 **말의 틀을 먼저 만든다**.

이 절의 결론

사이버·전자전 영역에서 2026 년에 확인되는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대무인 역량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올라왔다. 둘째, 중국은 민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국방동원의 법정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의무에 벌칙을 붙였다. 셋째, 신형 기술의 군사 이용에 관한 규범 논의의 장을 자국에 세우고 있다. 부대 편제와 장비 성능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와 의제는 공개된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읽으려면 능력 추정보다 법령과 회의 의제를 먼저 봐야 한다.

방산 수출 지도 — SIPRI 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앞의 다섯 절이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뤘다면, 이 절은 그 활동이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근거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6 년 3 월 공표한 2021~25 년 국제 무기 이전 자료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활동은 늘었으나 이전 실적은 아직 그만큼 늘지 않았다.** 그 간격이 한국의 창이다.

수출국 상위 10 개국

순위	수출국	2021-25(%)	2016-20(%)	증감	1 위 수입국	2 위	3 위
1	미국	42	36	+27%	사우디아라비아 12	우크라이나 9.4	일본 8.9
2	프랑스	9.8	8.8	+21%	인도 24	이집트 11	그리스 10
3	러시아	6.8	21	-64%	인도 48	중국 13	벨라루스 13
4	독일	5.7	5.4	+15%	우크라이나 24	이집트 14	이스라엘 10
5	중국	5.6	5.5	+11%	파키스탄 61	세르비아 6.8	태국 4.7
6	이탈리아	5.1	2.2	+157%	카타르 26	쿠웨이트 17	인도네시아 12
7	이스라엘	4.4	3.1	+56%	인도 29	독일 21	미국 7.8
8	영국	3.4	3.3	+13%	카타르 31	미국 14	우크라이나 13
9	한국	3.0	2.6	+24%	폴란드 58	필리핀 18	아랍에미리트 9.5
10	스페인	2.3	2.4	+6.7%	사우디아라비아 28	튀르키예 16	벨기에 12

중국 — 규모는 5 위, 구조는 편중

중국은 2021~25 년 세계 무기 수출의 5.6%를 차지해 5 위였다. 직전 5 년 대비 수출량은 11% 늘었지만 점유율은 5.5%에서 5.6%로 사실상 제자리다. 같은 기간 전체 무기 이전이 9.2% 늘었으니, 중국은 시장 성장을 따라간 정도다.

문제는 구조다.

- **지역 편중** — 수출의 **77%가 아시아·오세아니아**로 갔고 **13%가 아프리카**였다. 두 지역이 90%다.
- **고객 편중** — 47 개국에 주요 무기를 공급했지만 **61%가 파키스탄 한 나라**에 갔다. 2 위 세르비아가 6.8%, 3 위 태국이 4.7%다. 1 위와 2 위의 격차가 아홉 배다.

수입국 쪽에서 보면 중국의 존재감은 더 뚜렷하다.

수입국	세계 수입 순위(점유율)	직전 5 년 대비	수입 중 중국 비중
-----	---------------	-----------	------------

파키스탄	5 위(4.2%)	+66%	80%
세르비아	37 위(0.6%)	+195%	61%
태국	40 위(0.5%)	-53%	49%
알제리	33 위(0.9%)	-78%	27%

이들 나라에서 중국은 압도적 공급자다. 그러나 이 네 나라를 다 합쳐도 세계 수입의 6% 남짓이다. 중국은 소수의 시장을 깊이 장악했지만 넓히지는 못했다.

한편 중국의 무기 수입은 세계 21 위(1.3%)로 직전 5 년 대비 72% 줄었다. 남은 수입의 공급국은 러시아 66%, 우크라이나 15%, 프랑스 13%다. 자국 생산으로 대체가 진행됐다는 뜻이며, 이는 앞 절들에서 본 자국산 체계의 확충과 맞는다.

이집트 대조 — 이 절의 핵심

4 절에서 중국 공군이 6,000km 를 날아가 훈련한 나라가 이집트다. 그 이집트의 무기 수입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집트는 세계 12 위 수입국(점유 2.6%)이며 직전 5 년 대비 수입이 51% 줄었다. 상위 3 대 공급국은 프랑스 39%, 독일 30%, 이탈리아 18%다. 중국은 상위 3 위 안에 없다.

이 한 줄이 가장 중요한 검증 결과다. SIPRI 의 트렌드지표값(TIV)은 계약이 아니라 실제 인도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만약 이집트가 중국 전투기를 상당 수량 인수했다면 2025 년까지의 자료에 흔적이 남아야 한다.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4 절에서 언급한 J-10CE 40 대 계약설이 아직 인도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같은 이집트는 프랑스제 라팔과 러시아제 MiG-29M 을 운용하며, 8 월 훈련에서 그 기체들로 중국 J-16 과 붙었다. 그리고 이집트는 한국이 FA-50 도입을 협상 중인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 — 9 위로 올라섰고, 시장은 좁다

한국은 2021~25 년 세계 수출의 3.0%로 9 위였다. 직전 5 년 2.6%에서 24% 늘었다.

· 폴란드 58%, 필리핀 18%, 아랍에미리트 9.5%가 한국 수출의 세 축이다.

· 수입국 쪽에서 보면 한국은 폴란드 수입의 47%를 공급하는 최대 공급국이다(미국 44%). 폴란드는 이 기간 수입이 852% 늘어 세계 7 위 수입국이 됐다.

· 필리핀 수입의 42%도 한국이 공급한다(이스라엘 20%, 미국 15%).

·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9 개국의 무기 수입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공급국이다. 이들 29 개국의 수입은 2016~20 년 대비 143% 늘었고, 그중 58%가 미국에서 왔다. 다음이 한국 8.6%, 이스라엘 7.7%, 프랑스 7.4% 순이다. 폴란드 한 나라가 유럽 NATO 수입의 17%를 받았다.

구조를 중국과 비교하면 닮은 점과 다른 점이 함께 보인다. **닮은 점은 편중이다** — 중국이 파키스탄에 61%를 의존하듯 한국은 폴란드에 58%를 의존한다. **다른 점은 시장의 성격이다** — 폴란드는 세계 7 위 수입국이고 파키스탄은 5 위이지만, 폴란드는 유럽 조달 체계의 일부이고 파키스탄은 아니다. 한국의 편중은 성장하는 시장에 걸려 있다.

한국의 무기 수입은 세계 16 위(1.8%)로 직전 5 년 대비 54% 줄었고, 미국이 93%를 차지한다. SIPRI 는 이 감소의 원인 일부를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SIPRI 가 말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자료가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의 구조상 잡히지 않는 것이 있고, **중국의 판매 방식 전환은 정확히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첫째, 계약과 양해각서는 잡히지 않는다. TIV 는 실제 인도된 주요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한다. 서명된 계약, 협상 중인 패키지, 현지 조립 합의는 인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계약에서 인도까지 통상 2 년 이상이 걸리므로, 2026 년에 체결된 계약은 2028 년 이후 자료에서야 보인다.

둘째, 서비스 수출은 잡히지 않는다. 훈련 위탁, 정비 지원,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갱신, 데이터링크 통합 같은 항목은 주요 무기 이전이 아니므로 집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4 절에서 본 중국의 활동 — 이집트 전개, 태국의 아홉 번째 연합훈련, 아랍에미리트 인력의 중국 내 훈련, 벨라루스 공수부대의 중국 내 합동훈련 — 은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표준과 규격의 이전도 잡히지 않는다. 10 절에서 다룰 큐브위성 표준 탑재체 무상 제공 같은 방식은 무기 이전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달 종속을 만든다.

정리하면 이렇다. SIPRI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아직 팔리지 않았다"**이지 **"팔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층위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는 2~3 년 뒤 통계에 나타난다. 한국이 지금 이집트·아랍에미리트에서 협상하고 있는 안건들은 바로 그 시차 안에 놓여 있다.

이 절의 결론

창은 열려 있다. 중국의 수출은 규모로는 세계 5 위지만 파키스탄 한 나라에 61%가 묶여 있고, 중동·아프리카의 주요 시장에서는 아직 상위 공급국이 아니다. 한국은 9 위로 올라섰고 폴란드·필리핀에서 최대 공급국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우위는 **인도 실적의 우위**이지 **관계의 우위**가 아니다. 관계는 지금 중국이 훈련장과 표준 문서에서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이다.

군민 융합 2.0 — 상업 우주가 군수 사슬로 들어오는 경로

중국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은 오랫동안 "민간 기술을 군에 쓴다"는 방향으로 설명돼 왔다. 2026 년의 변화는 그 설명을 두 곳에서 갱신한다. 하나는 **법률이 민간 자원의 동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과 규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안쪽으로, 뒤의 것은 바깥쪽으로 향한다.

법률이 만든 통로

3 절에서 조문 단위로 본 국방동원법 개정을 상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세 개의 통로가 보인다.

통로 ① 비축 의무(제 47 조). 군수품 연구개발·전환생산·증산·정비보장 임무를 맡은 단위는 설비·재료·부속품·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를 비축하고, 전문기술대오를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연습을 조직해야 한다**. 임무를 맡는 순간 상시 대비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상업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이 아니라 **역량 유지**가 의무가 된다.

통로 ② 우선 공급 의무와 보상(제 49 조). 국방동원 실시가 결정되면 에너지·설비·재료·부속품·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단위는 군수품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 대신 임무 수행으로 직접 경제손실을 입은 단위에는 국가가 보상한다. 의무와 보상이 짝을 이루는 구조이며, 이것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장치다.

통로 ③ 정비보장의 사회화(제 48 조). 군수품의 통용화·계열화·조합화를 추진하고 **군수품 정비보장의 사회화**를 추진하며, 선진 군민 양용 기술·장비의 개발·응용을 지원하고 군민 표준 통용화 수준을 높인다. 이 조문은 방향이 반대다. 민간이 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의 정비 업무가 민간 시장으로 나온다**. 정비 시장은 초기 조달보다 규모가 크고 주기가 길다.

그리고 **제 46 조의 공급망 안전평가**가 이 세 통로 위에 놓인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서가 군수품 산업망·공급망의 안전평가를 조직·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상업 기업이 군수 사슬에 들어가려면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며, 반대로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사실상 인증을 받는 셈이다.

이 구조를 종합하면, 2026 년 10 월 1 일 이후의 중국 군민 융합은 **자발적 협력에서 법정 절차로 성격이 바뀐다**. 그리고 제 8 조가 "신항영역 국방동원 역량"을 명시했으므로, 상업 우주·인공지능·로봇 같은 신항 분야가 그 대상 범주에 들어간다.

상업 우주가 들어오는 실제 경로

7 절에서 본 수치를 이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2025 년 중국의 발사 87 회 가운데 **민영기업이 23 회**를 맡았다. 상업 발사 공위는 18 개가 운영 중이고 7 개가 건설 중이다. 란드스페이스는 궤도급 1 단의 육상 회수에 성공했고, 갤럭틱에너지는 재사용 25 회를 설계 목표로 하는 액체 발사체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민영기업이다.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것 — 저비용 반복 발사 능력, 궤도 투입 신뢰도, 발사 대응 시간 — 은 안보 자산의 재구성 능력과 구분되지 않는다. 위성을 빠르고 싸게 올릴 수 있는 능력은 통신 위성에도, 관측 위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동원법 제 8 조와 제 47 조는 이 능력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로 동원되는지를 법률에 담았다. 다만 **현재 공개 자료로는 이들 기업이 실제로 동원 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리포트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법률이 만든 절차와 산업의 능력이 서로 맞물릴 조건이 갖춰졌다는 데까지만 서술한다.

밖으로 — 표준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

2026 년 9 월 5 일 중국은 국제 지구-달 큐브위성 별자리 대과학계획을 공식 착수했다.

심우주탐사연구소(Deep Space Exploration Laboratory, 深空探测实验室)과 국제심우주탐사학회가 공동 발기했고 아시아-태평양양 우주협력기구(APSCO)가 지원한다.

항목	내용
규모	12U 규격, 기당 30kg 이하 큐브위성 30 기
배치	6 차에 걸쳐 배치 , 2030 년 전후 전량 발사·배치 완료 계획
임무	우주환경 감시, 감마선폭발 탐지, 월면 자원 탐사
협력 방식	표준 탑재체 3 종을 자체 개발해 협력국에 무상 제공 , 기술 훈련 실시, 표준 인터페이스 제정
표준 탑재체	고에너지 입자 영상장비, 우주 자기강계, 감마선폭발 탐지기
참여국	태국, 세르비아,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

이 계획의 설계에서 주목할 것은 위성 30 기가 아니라 **협력 방식**이다. 표준 탑재체를 자체 개발해 협력국에 무상으로 주고, 기술 훈련을 하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정한다.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비용 없이 우주 임무에 참여할 수 있다. 주는 쪽 입장에서는 **자국이 정의한 인터페이스가 협력국의 기준이 된다.**

명단이 겹친다

참여국 명단을 앞 절들의 표와 겹쳐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복이 나온다.

국가	큐브위성 계획	중국 무기 수출 지위(SIPRI 2021-25)	중국과의 연합훈련
----	---------	----------------------------	-----------

태국	참여	중국 수출 3 위 대상국(4.7%), 태국 수입의 49%가 중국	「잉자-2026」 공군 연합훈련 제 9 회
세르비아	참여	중국 수출 2 위 대상국(6.8%), 세르비아 수입의 61%가 중국	—
이집트	참여	상위 3 대 공급국 아님(프랑스·독일·이탈리아)	「문명의 매-2026」 공군 연합훈련 제 2 회, J-16 전개
인도네시아	참여	—	해군 함정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중국과 연습, 외교·국방 「2+2」 제 2 차 장관급 회의
세네갈	참여	—	—

여기에 7 절에서 본 사실을 더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 2026 년 8 월 25 일 창정-6C 가 올린 7 기의 위성 가운데 하나가 **태국 큐브셋**이었다. 그리고 중국유인우주국(CMSA)은 **파키스탄 우주비행사 1 명이 탑재체 전문가로 단기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 수출의 61%를 받는 최대 고객이다.

무기 판매, 연합훈련, 위성 발사 대행, 우주비행사 탑승, 표준 규격 무상 제공이 **같은 나라들에 대해 동시에 진행된다**. 개별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계의 밀도는 이런 방식으로 쌓인다.

이것이 이 절의 논지다. **규격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표준을 파는 일이다**. 인터페이스가 정해지면 다음 탑재체도, 그다음 위성도 같은 규격을 따르게 되고, 그 규격을 정의한 나라가 후속 조달의 기본값이 된다. 무기 수출 통계에는 한 줄도 잡히지 않는 방식이다.

국내 저변의 정비

같은 시기 중국 내부에서도 관련 법제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2026 년 8 월 26 일 「**중요 군공(軍工)시설 보호 감독관리방법(시행)**」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국방동원법 제 51 조가 규정한 중요 목표의 등급별 방호 제도와 짝을 이루는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생산 저변에서는 항텐즈자오(航天智造)의 군용 폭파재 생산라인 자동화 개조가 2026 년 9 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달성 연도 예상 매출이 약 1 억 5,000 만 위안으로 공시됐다. 규모는 작지만, 6 절에서 본 소모성 화력 계열의 실적 증가와 방향이 같다.

이 절의 결론

2026년 중국의 군민 융합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다. 안쪽으로는 법률이 민간 자원의 동원 절차와 의무, 보상, 벌칙을 명문화했다. 바깥쪽으로는 표준과 규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국을 늘렸고, 그 협력국 명단이 무기 수출·연합훈련 상대와 겹친다. 두 방향 모두 무기 이전 통계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조달 관계를 만든다. 9절에서 확인한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결론과 이 절의 관찰을 함께 놓으면,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가 분명해진다.

한국 안보·방산 시사점과 액션 플랜

지금까지의 관찰을 하나로 묶으면 한국이 처한 국면은 이렇게 정리된다. 중국의 완제기 인도가 비어 있는 동안 한국의 수출 창이 열려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 공백기에 훈련·법제·표준으로 관계를 만들고 있고, 그 성과는 무기 이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2~3 년 뒤에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지금 열린 창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과, 창이 닫히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 두 가지로 나뉜다.

협상의 축을 옮겨야 한다

한국 방산은 2021~25 년 세계 9 위 수출국(3.0%, 직전 5 년 대비 +24%)이 됐고, 폴란드 수입의 47%와 필리핀 수입의 42%를 공급한다. 이 성과는 가격과 납기, 기술이전 조건의 조합에서 나왔다.

문제는 중동·아프리카에서 마주치는 경쟁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4 절에서 본 대로 중국은 이집트에 J-16 과 함께 급유기·조기경보기·전자전기·구조헬기를 보내 **체계 전체**를 시연했고, 태국과는 아홉 번째 훈련에서 연합지휘센터를 세웠으며, 아랍에미리트와 벨라루스의 인력을 자국 훈련장에 들였다. 이것들은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다.

한국이 이집트에서 FA-50 을,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대공 유도무기와 기동 장비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가와 납기만으로 겨루는 구도는 불리하다. **협상 자료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

종래 협상 항목	전환해야 할 협상 항목
기체·차량 단가와 납기	연간 소타·가동률 보장과 그에 필요한 정비 인력·부품 재고 규모
기술이전 항목 수	현지 조립·정비 단계별 이관 일정과 각 단계의 현지 고용·자격 인증
성능 제원표	상대국 보유 기종과의 혼합 운용 조건, 데이터링크·식별 체계 통합 방안
무상 교육 인원 수	상대국 조종사·정비사의 한국 내 상주 훈련 프로그램과 교범의 현지어 이관

이 전환의 근거는 명확하다. 이집트는 프랑스제 라팔과 러시아제 MiG-29M 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다. 새 기체를 도입할 때 그 나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기체 값이 아니라 **이질적 기종을 하나의 지휘·정비 체계 안에서 굴리는 비용**이다. 그 비용을 낮춰 주는 제안이 단가 인하보다 설득력이 있다.

감시 지표 — 창이 닫히는 신호

다음 여섯 항목을 정례 보고 체계에 넣는다. 각 항목은 관측 가능하고, 관측되면 판단을 바꾼다.

#	감시 지표	확인 방법·주기	관측되면 뜻하는 것
---	-------	----------	------------

1	선양항공기·청두항공기의 3 분기·연간 매출 회복 여부	분기·연간 보고(10 월·이듬해 3~4 월)	전년 수준 회복 시 '인도 공백'이 아니라 분기 편중이었다는 뜻. 창의 폭이 좁아진다
2	완제기 3 사 매출 감소의 공식 설명 문구	반기·연간 보고 본문, 감사의견	가격 심사·정산 지연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생산 능력의 공백이 아니다
3	이집트·아랍에미리트의 중국 전투기 실계약 공개	양국 정부·군 발표, 중국 국방부 브리핑	공개 확인 시 창은 이미 닫힌 것으로 본다
4	SIPRI 트렌드지표값에 중국의 중동·아프리카 이전 등재	연 1 회(매년 3 월)	등재되면 전개 실증이 인도로 전환됐다는 확정 신호
5	쓰촨함 취역, 차세대 전투기 공식 공개	중국 국방부·관영 매체	다음 인도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다는 신호
6	대만 방면 군용기 소트의 하반기 반등 여부	대만 국방부 집계(반기)	반등하지 않고 공무선 활동만 늘면 압박 수단 전환이 고착된 것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국방동원법 시행(2026 년 10 월 1 일) 이후 제 46 조 공급망 안전평가의 대상 목록과 절차가 어디까지 공표되는지다. 평가가 어느 층위의 협력사까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중국 부품을 쓰는 한국 기업이 받는 간접 영향의 범위가 결정된다.

주체별·시기별 실행 과제

주체	0~3 개월	3~6 개월	6~12 개월
방산 대기업(완제기·기동·유도무기)	이집트·아랍에미리트 협상 자료를 단가표에서 운용 패키지(가동률 보장·정비 주기·현지 조립 단계·데이터링크 통합)로 재작성한다	상대국 보유 기종과의 혼합 운용 시나리오를 문서화하고, 상대국 인력의 한국 내 상주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중국의 다음 인도 사이클 개시에 대비해 중동·동남아 계약의 후속 지원 조항(부품 공급 기간·개량 옵션)을 장기화한다
방산 중소·부품	미국 1260H 명단 188 개 실체와 자사 1~2 차 협력사 목록을 대조하고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2027 년 간접 조달 금지 확대에 대비해 대체 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원산지 증빙 체계를 갖춘다	중국 국방동원법 제 46 조 안전평가의 공표 범위를 확인해 중국 소재·부품 노출 구간을 재평가한다
우주·위성 사업자	중국의 큐브위성 표준 탑재체 무상 제공	한국이 제공 가능한 규격·데이터	발사체 재사용이 확산될 경우의 위성

	방식(12U·30kg 이하·표준 인터페이스)을 분석하고 참여국 반응을 파악한다	서비스의 대안을 설계한다. 하드웨어 무상 제공이 어렵다면 데이터 처리·분석 서비스 쪽에서 접점을 만든다	재구성 비용·주기 변화를 자산 운용 가정에 반영한다
정책 입안자 (방위사업청·국방부·외교부)	중국의 대외 연합훈련 개최지·회차·참가 장비를 정기 집계 항목으로 편입한다	훈련 상대국과 무기 수출 상대국의 중첩을 수주 경쟁의 선행 지표로 삼는 분석 체계를 만든다	중국의 표준 무상 제공 전략에 대응하는 다자 협력 틀(아세안·중동 대상)을 검토한다

리스크

기회와 같은 표에 리스크를 적는다. 세 가지가 동시에 관리돼야 한다.

첫째, 미국 1260H 명단의 간접 조달 확대(2027 년)가 만드는 실사 부담이다. 명단은 188 개 실체를 담고 있고 반도체·자동차·인터넷·로봇 기업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한국 방산 협력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공급망 하위에 명단 기업이 있으면 미국 국방부 계약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1260H 는 수출통제 명단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부품 거래 금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은 즉각 단절이 아니라 **문서화된 공급망 지도다.**

둘째, 중국 시장·공급망 노출이다. 국방동원법 제 49 조는 국방동원 실시가 결정되면 공급 단위가 군수품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중국 내 협력사에 부품을 의존하는 구조는 평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바뀌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대체 조달 경로 확보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으로 계산해야 한다.

셋째, 중동 수주의 정치적 변동성이다. 이 지역의 조달 결정은 기술 평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집트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서 수입의 87%를 조달하는 구조에는 오랜 관계와 금융 조건이 얹혀 있다. 한국이 협상 중인 안건들은 대부분 계약 이전 단계이므로, 파이프라인을 확정된 매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 세 흐름이 겹치는 지점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세 흐름을 겹쳐 본다.

북한은 2026 년 9 월 6 일 최현급 구축함 2 번함 강건함을 원산항에서 취역시켰고, 김정은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통해 핵전투체계의 다방위·고효율 운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 보도 인용). 중국은 푸젠함 취역으로 3 향모 체제에 들어가 2026 년을 전투력 생성의 해로 잡았고, 대만 동쪽 해역을 자국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공개했다. 일본은 2027 년 방위성 확대 개편과 무인잠수정의 장거리 미사일 탑재를 계획하고 호주와 극초음속 시험발사에 합의했다.

세 흐름의 공통점은 **수상·수중 플랫폼에 장거리 타격 자산을 얹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상대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가 쓸 수 있는 거리가 변수가 되면, 방어 계산의 기준선이 바뀐다. 한미일 협력 체계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변화의 관측과 조기 경보이며,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위성·감시 체계에 걸쳐 있다.

여기서 7 절의 관찰이 되 돌아온다. 중국이 우주 자산을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에서 "많고 보충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면, 한국의 감시 자산 운용 가정도 함께 점검돼야 한다. 상대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 쪽 자산의 생존성과 보충 능력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는 단기 과제가 아니지만, **지금 계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계산이 필요해졌을 때 시간이 없다.**

부록 — 지표·제원·출처

1. 주요 지표

지표	값	기준시점	출처
중국 전국 일반공공예산 국방지출	1 조 9,400 억 위안(+6.9%)	2026 년 예산안	전국인민대표대회, 2026-03-10
중앙본급 국방지출	1 조 9,100 억 위안(+7.0%)	2026 년 예산안	동상
한 자릿수 증가 지속	11 년 연속	2016~2026	동상
국방동원법 개정 통과	2026-08-28(제 14 기 전인대 상무위 24 차 회의)	—	국방부 게재 법률 전문
국방동원법 시행	2026-10-01(제 82 조)	—	동상
국방동원법 구성	14 장 82 조	—	동상
미국 1260H 명단 등재 실체	188 개	2026-06-10 공표	미국 국방부
1260H 직접 조달 금지 발효	2026-06-30	—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60H 간접 조달 확대	2027 년	—	동상
중국 무기 수출 세계 순위·점유율	5 위, 5.6% (+11%)	2021~25	SIPRI, 2026-03
중국 수출의 파키스탄 비중	61%	2021~25	동상
중국 수출의 지역 분포	아시아·오세아니아 77%, 아프리카 13%	2021~25	동상
중국 무기 수입 순위·증감	21 위, 1.3% (−72%)	2021~25	동상
한국 무기 수출 순위·점유율	9 위, 3.0% (+24%)	2021~25	동상
한국 수출의 폴란드·필리핀·아랍에미리트 비중	58% / 18% / 9.5%	2021~25	동상
유럽 NATO 29 개국 수입 중 한국 비중	8.6%(미국 58%에 이은 2 위)	2021~25	동상
한국 무기 수입 순위·증감	16 위, 1.8% (−54%)	2021~25	동상
이집트 무기 수입 상위 3 대 공급국	프랑스 39%, 독일 30%, 이탈리아 18%	2021~25	동상
2025 년 중국 우주 발사	87 회(민영기업 23 회)	2025 년	차이렌서(CLS, 财联社), 2026-01-04
상업 발사 공위	18 개 운영·7 개 건설 중	2026 년 초	동상
창정 시리즈 누적 발사(창정-8A)	제 661 차	2026-08-04	중국항천과기그룹
창정 시리즈 누적 발사(창정-6C)	제 665 차	2026-08-25	동상
첸판 별자리 재궤도 위성	200 기(1 단계 목표 324 기)	2026-06-05	과기일보
귀왕 별자리 누적 발사	150 기 이상	2026 년 상반기	통신세계망
귀왕 별자리 계획	2027 년 400 기 → 2029 년 말 약 1,300 기 → 2035 년 약 13,000 기	계획	동상

유인 월면 착륙 목표	2030 년 이전	계획	중국유인우주국(CMSA), 2026-02-27
대만 방면 해방군 군용기 탐지	1,334 소티(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	2026 년 상반기	대만 국방부 공표
대만 2027 년도 방위지출	1 조 신타이완달러 초과(+18.2%, 세출의 29%)	2026-08-20 통과	대만 행정기구

2. 2026 년 상반기 중국 방산 상장사 실적

단위 억 위안. 각사 2026 년 반기보고서(2026 년 8 월 공시). 환산 기준 1 위안 201.9 원(2026-09-07).

기업	티커	2026 상반기 매출	전년비	2026 상반기 순이익	전년비	매출총이익률
중국선박	600150.SH	915.30	+26.0%	99.54	+163.5%	17.4%
AECC 항공동력	600893.SH	207.55	+47.2%	1.46	+59.3%	9.0%
청두항공기	302132.SZ	151.67	-26.7%	7.09	-22.3%	11.0%
시안항공기	000768.SZ	141.86	-26.9%	4.90	-28.9%	8.1%
AVIC 존혼	002179.SZ	112.40	+0.5%	11.19	-22.1%	28.8%
AVIC 헬리콥터	600038.SH	90.07	-12.0%	1.88	-33.6%	9.5%
선양항공기	600760.SH	61.91	-57.7%	4.73	-58.4%	10.6%
AVIC 중기계	600765.SH	51.67	-10.1%	4.44	-9.9%	24.7%
중빙홍젠	000519.SZ	30.30	+38.2%	0.37	+191.4%	18.5%
홍두항공	600316.SH	27.42	+80.0%	0.12	+171.9%	2.3%
젠화테크놀로지	000733.SZ	22.42	-7.0%	2.47	-21.0%	44.7%
글라룬테크놀로지	600562.SH	17.27	+0.3%	2.93	-16.2%	43.8%
청페이인테그레이션	002190.SZ	10.99	+10.8%	-0.59	적자 전환	4.9%
레인보우 UAV	002389.SZ	8.91	+9.9%	0.75	기저효과	19.1%

3. 발사체·함정 제원

대상	항목	값	출처
주첸-3(Zhuque-3, 朱雀三號)	전장 / 이륙질량 / 이륙추력	66.1m / 약 570 톤 / 7,542kN	중국신문망, 2026-08-19
주첸-3	추진제 / 기체 재질	액체산소-메탄 / 스테인리스강	동상
주첸-3	1 단 회수	착륙다리 방식 육상 회수 성공(2026-08-19, 2 차 시도)	동상
팔라스-1(Pallas-1, 智神星一號)	첫 비행 / 발사장	2026-09-01 성공 / 주취안 동평 상업항천 혁신시험구	과기일보, 2026-09-01
팔라스-1	설계 재사용 횟수	25 회 이상	동상
팔라스-1	전장 / 코어 직경 / 이륙질량	52m / 3.35m / 약 283 톤 /	자국망·신랑, 2026-09-01

	/ 저궤도 탑재	5~7 톤(보도 기준)	
창정-8A	임무 / 특기	위성인터넷 저궤도 제 23 조 위성 / 성능 개량 후 첫 전개통 검증, 「직행 급행」 최초 구현	중국항천과기그룹
창정-6C	임무	1 발 7 성(중국과학원 계열 위성, 무뎬-1A·1B, 바이-04 호, 갤럭시스페이스 위성, 태국 큐브셋 등 7 기)	동상
푸젠함(Fujian, 福建舰)	취역 / 특기	2025-11-05 / 재래식 동력 + 전자기 캐터펄트	관영 보도
푸젠함	확인된 함재기	J-35, J-15T, J-15DT, KJ-600	동상
쓰촨함(Sichuan, 四川舰, 076 형)	진수·명명 / 첫 해상시험	2024-12-27(상하이) / 2025-11-14~16	보도 종합
쓰촨함	만재배수량 / 특기	4 만 톤 초과 / 전자기 캐터펄트·어레스팅, 이중 아일랜드 구조	동상
강건함(姜健, 최현급 2 번함)	취역	2026-09-06, 원산항	조선중앙통신 인용 보도

4. 국방동원법 주요 신설·개정 조문

조문	요지
제 4 조	국방동원 체계의 정보화·지능화 수준 제고, 국방동원 현대화 추진
제 6 조	국방동원 능력 검증평가 기제 수립, 검증평가 체계 구축
제 7 조	국방동원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서비스 보장 제도 수립, 관련 데이터의 법적 수집·사용과 데이터 안전 보장
제 8 조	선진 기술의 국방동원 응용 추진, 신흥영역 국방동원 역량 발전
제 46 조	군수품 산업망·공급망 안전평가의 조직·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회복력·안전 수준 제고
제 47 조	설비·재료·부속품·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 비축, 전문기술대오 구성, 정기 연습 조직
제 48 조	군수품 통용화·계열화·조합화, 정비보장의 사회화, 군민 양용 기술·장비 개발·응용 지원
제 49 조	국방동원 실시 후 공급 단위의 군수품 수요 우선 충족, 직접 경제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제 51 조	군사·경제·사회 목표 및 수뇌기관 등 중요 목표의 등급별 방호 제도
제 78~80 조	개인·법인·공무원별 법률책임,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강제이행·벌금
제 82 조	2026 년 10 월 1 일 시행

5. 2026 년 6~9 월 중국군 대외 연합훈련

훈련명	상대	개최지	회차	군종
「문명의 매-2026」(文明之鷹-2026)	이집트	이집트 공군기지	제 2 회	공군
「사냥매 방패-2026」(猎鹰盾牌-2026)	아랍에미리트	중국 신장 허텐	제 4 회	공군
「잉지-2026」(鹰击-2026)	태국	태국 우돈·돈므앙 기지	제 9 회	공군
「선잉-2026」(神鹰-2026)	벨라루스	중국 후베이 공군 훈련센터	제 4 회	공수
「해상협력-2026」(海上合作-2026)	싱가포르	중국 광둥 잔장	제 5 회	해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인도적 지뢰제거 실병연습	다자(러시아 개최)	러시아	—	육군

6. 원문 출처

- 중국신문망, 2026 년 국방지출 예산 발표, 2026-03-10 ·
<https://www.chinanews.com.cn/gn/2026/03-10/10584719.shtml>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전문(신화사 배포), 2026-08-28 ·
<http://www.mod.gov.cn/gfbw/fgwx/flfg/16482046.html>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2026 년 8 월 정례 기자회견 문자 기록, 2026-08-27 ·
<http://www.mod.gov.cn/gfbw/xwfy/lxjzhzt/2026lxjzh/2026n8y/16481856.html>
- 신화망, 중국-이집트 「문명의 매-2026」 공군 연합훈련 첫 비행일, 2026-08-24 ·
<https://www.news.cn/world/20260824/5a48240edbc34f0696a6afe5eb90328e/c.html>
- 중국신문망, 중국 신예 군용기의 아프리카 전개, 2026-08-26 ·
<https://www.chinanews.com.cn/gj/2026/08-26/10684348.shtml>
- 환구망(국방부 발표 전제), 중국-아랍에미리트 「사냥매 방패-2026」 공군 연합훈련, 2026-08-21 ·
<https://3w.huanqiu.com/a/0b9eda/4SsihUtPpgN>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해방군보), 중국-벨라루스 「선잉-2026」 공수부대 연합훈련 종료, 2026-08-25 ·
<http://www.mod.gov.cn/gfbw/jsxd/ly/16481153.html>
- 중국신문망, 중국-싱가포르 「해상협력-2026」 연합훈련, 2026-09-03 ·
<https://www.chinanews.com.cn/gn/2026/09-03/10689410.shtml>
- 중국신문망, 주첸-3 발사체 1 단 회수 성공, 2026-08-19 ·
<https://www.chinanews.com.cn/gn/2026/08-19/10680013.shtml>

- 과기일보, 팔라스-1 발사체 첫 비행 성공, 2026-09-01 ·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9/01/content_573168.html
- 중국항천과기그룹, 창정-8A 위성인터넷 저궤도 위성 발사, 2026-08-04 · <https://www.spacechina.com/n25/n2014789/n2414549/c4677418/content.html>
- 중국항천과기그룹, 창정-6C 1 발 7 성 발사, 2026-08-25 · <https://m.spacechina.com/n2014789/n2414549/c4693783/content.html>
- 중국유인우주국(CMSA), 2026 년 유인우주 비행 임무 발표, 2026-02-27 · https://www.cmse.gov.cn/xwzx/202602/t20260227_57278.html
- 광명망, 국제 지구-달 큐브위성 별자리 대과학계획 착수, 2026-09-05 · https://news.gmw.cn/2026-09/05/content_38985748.htm
- 차이렌서(CLS), 2026 년 상업항천 발사 계획, 2026-01-04 · <https://www.cls.cn/detail/2247238>
-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요 군공시설 보호 감독관리방법(시행)」 초안 의견 수렴, 2026-08-26 · <https://www.sastind.gov.cn/n10086167/n10086216/c10771180/content.html>
- 평壤군사, 북한 최현급 2 번함 강건함 취역, 2026-09-07 · <https://news.ifeng.com/c/8wDPf2eZfDW>
-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5」, 2026-03 ·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6-03/fs_2603_at_2025.pdf
- 각사 2026 년 반기보고서(2026 년 8 월 공시),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7. 환율

발행일 기준 한국은행 매매기준율(2026 년 9 월 7 일): 1 위안 201.9 원 · 1 달러 1,355.2 원 · 1 홍콩달러 172.83 원.

본문의 위안화 금액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기준으로 환산했다.

8. 신규 용어 대조

용어	설명
국방동원법(国防动员法)	평시·전시 전환과 자원 동원을 규정하는 중국 법률. 2026-10-01 시행
군수품 산업망·공급망 안전평가(军品产业链、供应链安全评估)	국방동원법 제 46 조가 신설한 법정 평가 절차
신영역·신질 작전역량(新域新质作战力量)	무인·우주·전자기·사이버 등 새 영역의 전력을 가리키는 중국 축 표현
무인 지능 작전역량(无人智能作战力量)	15 차 5 개년 계획 건의가 건설 가속을 명시한 전력 범주
반(反)무인 역량(反无人)	무인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무인 역량과 한 문장에 함께 규정됐다

인지 전자전(认知电子战, Cognitive EW)	미지의 위협 신호를 현장에서 분석해 대응을 생성하는 전자전 방식
군수품 정비보장의 사회화(军品维修保障社会化)	군의 정비 업무를 민간 시장에 개방하는 방향. 국방동원법 제 48 조
「직행 급행」(直达快车)	창정-8A 가 2026-08-04 발사에서 처음 구현한 위성 투입 방식의 명칭
1260H 명단(1260H List)	미국 국방부가 지정하는 「중국 군사기업」 목록. 조달·투자 위험경고 성격
트렌드지표값(TIV, Trend Indicator Value)	SIPRI 가 무기 이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쓰는 지표. 실제 인도 기준